

[찬양과 큐티 8]

“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”

유지연 집사 / 1999 / 페이지 수: 1

“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”

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, 이어서 영려하고 사는 인생을 향하여 나누어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들 한 부분을 노래한 것이다(마 6:25~7:11).

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영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(믿음 없는 사람들)이 구하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다. 또 너희 중에 누가 영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으셨다.

영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. 하지만 참으로 영려하지 않고 있는가?

그래서 주님은 삶의 방식으로서 ‘먼저’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‘우선순위’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. 그런데 우리는 이 ‘먼저’라는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. ‘먼저’를 단순히 시간적인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다. 그것은 마치 디즈니랜드에서 청룡열차를 먼저 타느냐 배를 먼저 타느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. 식사를 먼저하고 구경하느냐 구경한 다음에 밥을 먹느냐 하는 식의 ‘우선순위’, 즉 ‘우선순서’인 것이다.

그래서 주일날 교회에만 ‘먼저’ 다녀오면 그 후의 시간은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. 주님의 전에 ‘먼저’ 땅만 밟고 오면 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.

그러나 우선순위는 ‘먼저’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‘다’ 드리는 것이다. 나의 것을 다 드릴 우선순위가 그분께 있다는 것이다. 나의 우선순위가 그 분과 그 분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다. 우선순위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삶의 방식(Life-style)이어야 한다. 그러므로 우선순위는 예배(Worship)의 삶이다.

바로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림으로 예배적인 삶,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.

나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켜 행함으로 진실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? 나의 삶이 온전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감으로 ‘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’는 그 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?

<유지연 집사 / 헛서뮤직 대표>

* 출처 : QT신문